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AUGUST
Vol.247

**People
First!**

**당신의 도전이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삼성  KPMG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People First!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삼성KPMG는 구성원들이 법인 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People First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이 기다려지는 곳,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곳,
생활 속 이벤트로 즐거움이 가득한 곳,
삼성KPMG는 행복한 일터를 가꾸며,
소중한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건강한 성장

04 Issue Focus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08 Market Reader

수소 시대의 도래, 기업의 13가지 기회

10 Team Story

PF채권의 '종합 해결사'!
PF채권 토털케어 센터

12 Client+

영상 제작 혁신 테크
스타트업, 바이오몬스터

14 Expert's Advice

내년 초부터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
그 대응책은?

16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18 채용 특집 I - New People

6월 입사자를 만나다!
“우리는 신입 삼정인입니다!”

20 채용 특집 II - Recruiter

Recruiter를 만나다!
“함께 성장! 지속 성장! 성장으로 이끄는 법인”

22 삼정동호회자랑

슬램덩크의 열기를 이어갈
농구 동호회, 삼정 Blues!

24 인재양성소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6기 수료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어땠나요?”

26 KPMG Story

FY2023 신입 파트너들의
다짐은?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실패학 개론

30 心 Care

진정한 긍정:
무조건 '좋게 좋게'가 아닌 태도이자 선택

32 Samjong News

‘2023 삼정KPMG 프로페서’에
백태영·이호영·이유진·정선문 교수 위촉 外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 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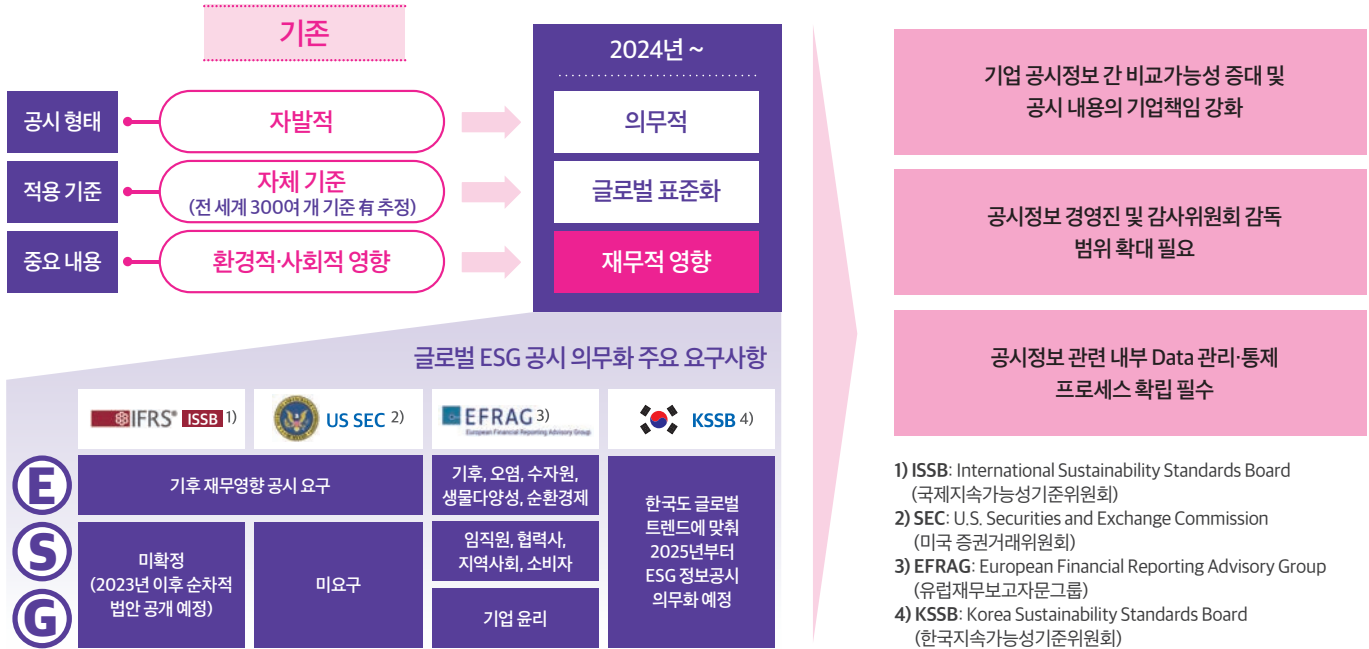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ESG 정보공시 세미나’ 개최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난 7월 6일, 삼정KPMG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1,00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웨비나에 참여했고,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세미나 현장에 기업 고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비롯해 삼정KPMG 발간 보고서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내용도 함께 살펴본다.



글로벌 ESG 정보공시 ESG 정보공시의 글로벌 표준화·의무화로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며, ESG 공시를 위한 준비가 필수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의 도래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ESG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역량에 따라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이 좌우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이 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에 적합한 ESG 공시 표준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되어 전체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표준화에 맞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ESG 공시 내용은 정부, 투자자, 고객 등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사결정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ESG 공시, ESG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뒀어야 한다.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 ESG 기회 창출도 함께 고려해야

지난 2~3년간 국내 기업들은 ESG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고, ESG 경영전략 체계 구축 등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 활동을 수행해왔다. 통일된 ESG 공시 기준 부재로 기업 입장에서는 ESG 정보공시에 대한 업무 혼란 문제가 발생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ESG 정보공시 내용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및 유럽의 ESG 공시 표준화·규제화 도입과 함께

최근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발표됐다.

‘ESG 정보공시 세미나’에서 삼정KPMG ESG 비즈니스그룹의 리더 이동석 부대표는 “기업들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량적 내용으로 신뢰성 있게 ESG 정보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에 직면함에 따라, ESG가 기업 가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ESG 정보 공시 대응 전략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ESG 기회 창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ISSB 공시 기준,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개선에 도움돼

본 세미나에서 백태영 ISSB 위원은 지난 6월 말 발표된 ISSB 공시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백 위원은 “ISSB의 정보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ESG 정보공시 방법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ESG 정보공시를 요구함

	SEC	ISSB	EFRAG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되는 항목이 있나요?	✓ ¹⁾	✗ (상호 참조)	✗	✓ SEC는 재무적 영향, 지출 지표 및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에 대해, ■ 재무제표상 주석에 공시 요구 ■ 외부감사 및 SOX(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
연차 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	✓ ²⁾	✓ (공시 위치 자율)	✓	✓ ISSB가 한국에서 의무화 전에도 ■ 글로벌 ESG 우수 기업들은 ISSB 공시기준 선도적으로 채택 예상 ■ 투자자 공시 요구 가속화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공시되어야 하나요?	✓	✓ ³⁾	✓	1) 재무적 영향, 지출 지표 및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을 주석 공시 2) 연차 보고서 내 별도 영역에 공시 혹은 MD&A (경영진단의견서)와 같은 영역 참조로 공시 3) 공시 시점 관련 논의 진행 중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개발한 것으로, 유럽연합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등 보고의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존 보고 양식 및 규제와 맞추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구조를 채택했다"며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IFRS S2 기준에 플랫폼을 맞춰 상호운영 가능성을 통한 효율적 보고의 기능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위원은 "ISSB 기준을 통해 투자자는 일관되고 비교 및 검증 가능한 포괄적인 공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배구조와 전략, 자본 확보, 자본 비용, 평판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개선으로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MG 독일의 록사나 미쉬카(Roxana Mischke) 파트너는 최근 6월에 발표한 기업지속가능성지침(CSRD) 초안 개정본의 주요 내용 및 이행 방법과 함께 독일 및 EU 공급망 실사법을 실제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록사나 미쉬카 파트너는 "무엇보다 CSRD 보고 기업 범위에 대한

면제 조항을 선택하는 것은 독일 현지 기업에도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며, 한국 기업들은 공시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전략적으로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 정보공시 대응 3대 핵심 추진 과제

삼정KPMG는 ESG 정보공시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정보공시 거버넌스 구축 ▲주요 이행 과제 및 이슈 대응 (연결기준 공시 및 기후 관련 재무 영향분석 등) ▲ESG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삼정KPMG ESG 비즈니스그룹의 문상원 상무는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정보공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규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ESG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별 해외법인 및 자회사 포함 여부를 파악하고, 차별적 공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이행 과제 중 연결기준 공시와 관련해 삼정KPMG 정보공시/인증 CoE 리더 김진귀 부대표는 "정보공시 거버넌스 구축 방향으로 연결기준 대응 및 재무보고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관리·감독 체계까지 폭넓게 정비하고, 자회사·해외법인에 표준화된 ESG 데이터 취합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삼정KPMG 정보공시/인증 CoE의 황정환 상무는 "연결정보공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범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방법을 적용하고, 산업별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후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재무영향 산출방법론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SG 정보공시 대응, 어떻게 해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ESG 공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ESG 정보공시 기준이 요구하는 공시 난이도는 매우 높고 복잡하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정보공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시 규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ESG 고도화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 대응이 필



ESG 세미나에 참여한 연사들 1. 백태영 ISSB 위원 2. KPMG 독일의 룩사나 미쉬카 파트너와 ESG 정보공시/인증 CoE 황정환 상무 3. 삼정KPMG ESG 비즈니스그룹 리더 이동석 부대표 4. ESG 정보공시/인증 CoE 리더 김진귀 부대표 5. ESG 비즈니스그룹 문상원 상무 6. ESG 비즈니스그룹 이승근 상무

요하다. 기업별 공시 규제 대상 여부가 차별적이며, 규제별 자사(해외법인/자회사 포함)의 해당 여부 파악 급선무이다. 2~3개의 ESG 정보공시 기준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보 공시 기준별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수준 및 정보 이용 대상의 범위가 차별적이므로, 단일/복수 기준 적용 대상 기업에 따라, 선택적 관리 또는 포괄적 관리의 차별적 공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T 시스템 도입 필수...

업계 최초 IT 플랫폼 'ESG LINC' 론칭
ESG 정보공시의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방법론, 프로세스 및 IT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공시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위한 IT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아직 ESG 정보공시 IT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들

도 있지만, ESG 공시 의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시 적시성, 글로벌 공시표준 적합성, 증빙 신뢰성(Audit-ready), 지속적·실질적 지표 개선의 관점에서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별로 지표 관리, 담당자별 데이터 관리, 보고서 관리, 진도율 등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도록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연결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해외법인이나 자회사까지 연결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안점을 뒀다. IT 시스템 등 효과적으로 ESG 정보공시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ESG 성과 개선을 위해서 기업이 어떠한 인사이트를 지녀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편, 삼정KPMG는 의무화된 ESG 공시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일원화된 ESG 전략을 지원하는 IT 플랫폼 'ESG LINC(링크)'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LINC는 연결(Link)이라는 의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을 결합해 만든 명칭이다. ESG LINC는 ESG 공시, ESG 리스크 관리, ESG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에서 기업의 ESG 전략 구현을 돕는다. ESG LINC를 통해 공시 규제별 표준 지표를 관리할 수 있으며, 기후 리스크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ESG LINC는 ESG KPI 개선을 위한 혁신 과제 도출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과 보고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SG 플랫폼 LINC]



[ESG 정보공시 보고서]



[ESG 정보공시 세미나]

CONTACT US

ESG 비즈니스그룹의 리더 이동석 부대표
Tel. 02-2112-7954
E-mail. dongseoklee@kr.kpmg.com



ESG 정보공시/인증 CoE 리더 김진귀 부대표
Tel. 02-2112-0223
E-mail. jinkwikim@kr.kpmg.com



수소 시대의 도래, 기업의 13가지 기회

바야흐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액화 수소 플랜트가 완공되어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플랜트로부터 생산되는 액화 수소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액화 수소 충전소 보급 정책을 수립하는 등 수소 에너지 시대는 태동을 넘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소 에너지 시대에서 기업의 13가지 비즈니스 기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 수전해 설비 시장과 액화 수소 충전소 시장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수소경제 밸류체인 단계별 주요 이슈

수소경제 밸류체인은 크게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으로 구성된다. 밸류체인 단계별로 시장의 화두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생산 단계의 주요 화두로는 그린 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활용해 물을 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 방식을 들 수 있다.

저장 단계에서는 수소의 저장 용량 증가 방안과 더불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보유한 저장매체가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이슈다. 운송 단계에서는 국내 및 해외 생산 수소를 운송할 때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니즈가 관찰된다. 충전 단계에서는 충전소를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축된 충전소에 수소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활용 단계에서는 시장 성장성 및 탄소중립 달성 관점에서 수소 활용이 필수적인 시장을 찾는 것이 화두다.

13가지 수소경제 비즈니스 기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단계에 따라 총 10가지 이슈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3가지의 비즈니스 기회가 대두되고 있다.

13가지의 비즈니스 기회

- ① 그린 수소 생산 수전해 설비
- ②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
- ③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
- ④ 액화 수소 플랜트
- ⑤ 액화 수소 운반선
- ⑥ 블루·그린 암모니아 시장
- ⑦ 암모니아 운반선 및 연료 추진선
- ⑧ 타입4 수소 튜브트레일러
- ⑨ 이동식 수소 충전소
- ⑩ 액화 수소 충전소
- ⑪ 수소 상용차 시장
- ⑫ 수소환원제철
- ⑬ 수소 연료전지

이 중, 수전해 설비 시장과 액화 수소 충전소 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수전해 설비 & 액화 수소 충전소 시장

먼저,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해 설비 시장이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활용해 물을 분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소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 수소 시장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51.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전해 설비(물을 전기 분해하는 설비)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수전해 설비 설치 규모(수전해 설비를 구축했거나 구축 예정 연도가 공개된 프로젝트의 설치 용량 합계)가 2019년 242MW에서 2023년 5,517MW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액화 수소 충전소 시장에서도 비즈니스 기회가 관찰된다. 액화 수소 충전소 시장의 개화는 액화 수소 자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액화 수소는 기체 수소보다 부피를 작게 차지하므로 액화 수소

충전소는 기체 수소 충전소 대비 적은 면적에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액체 상태의 수소는 대기압에서 저장 용이하며 고압으로 압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폭발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므로 액화 수소 충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 초점을 맞춰 정부는 2030년까지 70개의 액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액화 수소 충전의 주요 대상인 수소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하여 액화 수소 충전소 시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내 기업이 에너지 전환의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갖춰 선제적으로 비즈니스 기회에 대응할 때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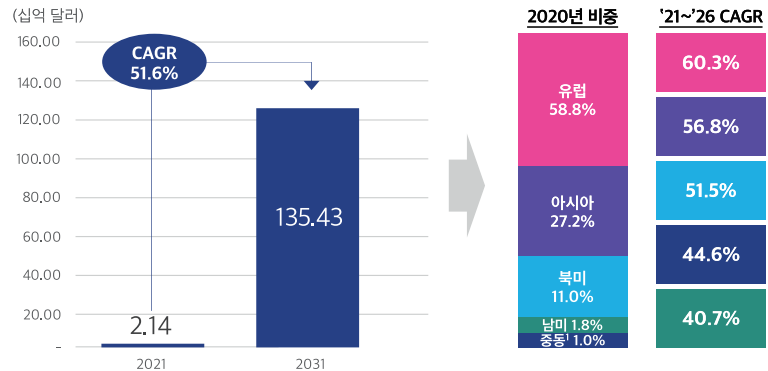
CONTACT US



IM4본부
강정구 부대표
Tel. 02-2112-7629
E-mail. jeonggukang@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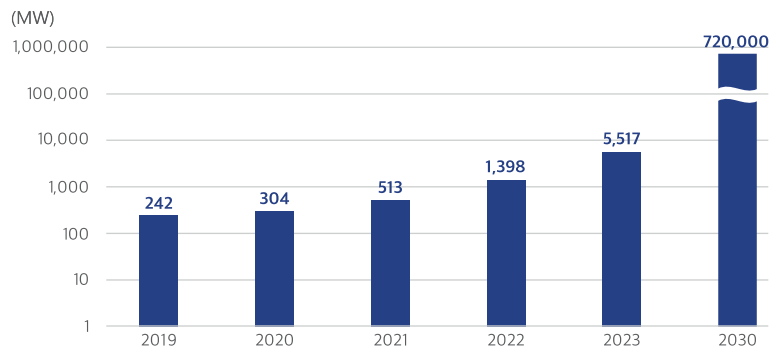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그린 수소 시장 규모 전망 및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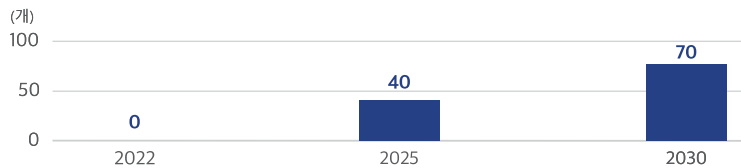
Source: Statist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Note 1: 중동 및 아프리카 포함

전 세계 수전해 설비 설치 규모 전망



Source: IEA | Note: 2022년과 2023년 전망치는 현재 구축중이거나 구축 예정연도가 공개된 프로젝트 설치 용량 합산. 2030년 전망치는 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에 기반하여 도출

국내 액화 수소 충전소 보급 목표 및 시장 활성화 방안



수요 창출	기반 조성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신설 통근/셔틀버스 및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단계적 전환 추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 수소 충전소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이적거리 합리화 등) 수소활용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 수소 핵심 부품 (저장탱크, 밸브, 압축기) R&D 진행 액화 수소 부품의 검사 및 인증 시설 구축 기반 기업 지원 강화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PF채권의 종합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PF채권 토털케어 센터

PF채권의 ‘종합 해결사’! PF채권 토털케어 센터

지난 6월, 삼정KPMG는 건설사, 금융기관, 시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에 대한 투자 및 매각 자문을 돕는 PF채권 토털케어 센터를 신설했다. 이번 호에서는 PF채권의 종합 해결사를 자처하는 PF채권 토털케어 센터를 만나본다.

PF채권 부실화, 사전에 대처 방안 모색해야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사비와 PF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거 개발 프로젝트 사업성이 저하되는 추세이다. 오피스 시장은 양극화 추세로 소수 우량매물의 경우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나, 대부분 공사비 및 금리 이슈로 자본환원율(Cap rate)과 비교 시 역레버리지가 지속되고 있다. 물류센터는 시장 상황 악화로 대규모 공실 및 개발사업장 공사 지연 발생 등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데이터센터(DC)는 상품 전망이 긍정적이거나, 신규 수전 용량 확보가 어려워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최근 아파트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매출채권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4월 한국신용평가 발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2023년 1분기 예상 증권사(26개) 만기도래 부동산 PF채권 규모는 약 14조 원이다. 그 중 약 58.4%가 브릿지론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2023년 현재 만기도래 부동산 PF채권의 추가 만기 연장 혹은 정책금융 확대로 PF채권 부실화를 임시방편으로 억제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에 곧 다가올 부동산 NPL 성격의 PF채권 부실화가 명확해질 시점이 언제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F채권 부실화가 명확해진 후에는 사후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대처 방안을 진단받는 것을 제안한다.



베테랑 전문가 그룹,

PF채권 관련 토털 케어 서비스 제공

삼정KPMG는 건설사, 금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PF채권의 종합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PF채권 토털케어 센터'를 신설했다. 부동산 사업재편 및 부실채권(NPL) 전문가인 김정환 전무가 센터장을 맡았으며, 부동산 스페셜리스트 장주항 상무, PF채권 스페셜리스트 배재환 상무와 권기현 상무를 포함해 30여 명의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PF채권·부동산·사업재편 등의 전문가들이 PF채권과 관련해 매각, 투자유치, 정상화, 가치평가, 사업성 검토 등 PF채권 관련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PF채권 투자, PF사업장의 시공권 확보,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는 PF채권의 회수 가능성 평가, PF채권 매각, PF사업장 투자유치를 자문한다.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는 투자 또는 보유한 PF채권의 평가와 함께 사업 정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행사에는 부동산 개발 보유 사업장의 EOD(기한이익 상실) 위험 조기 진단 후 PF채권 만기 도래 예정 사업장에 대한 리파이낸싱 구조 수립 및 투자자 유치, 투자회수(엑시트) 전략 등을 자문한다. 제2금융권에는 PF채권 및 브릿지대출 매각, 담보물 매각, 사업권 매각 등 PF채권 관련 자문을 수행한다.

한편 삼정KPMG PF채권 토털케어 센터는 최근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사, 금융기관, 시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PF채권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 고자 한다.

PF채권 토털케어 센터를 소개한다면?

김정환 전무 (센터장)
junghwankim
@kr.kpmg.com



PF채권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PF채권 토털케어 센터는 고객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의 해결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PF채권을 포함한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도움이든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주저 없이 PF채권 토털케어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항 상무
joohangchang
@kr.kpmg.com



오피스, 호텔, 물류창고, 개발부지 등 다양한 자산의 매각/매수자문을 통해 얻은 이해관계자 간 조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PF채권 및 브릿지론의 채권단, 사업주, 시공사 간의 매듭을 푸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신용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과 제휴를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배재환 상무
jbae5
@kr.kpmg.com



다양한 업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서비스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본부 내 신설된 부동산금융팀 팀장 역할로 부동산 개발 관련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아울러 과거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다수의 부동산 NPL 채권 평가, 매각자문 또는 정상화 업무 수행,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부동산 개발 자문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센터 발전 및 확장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권기현 상무
kkwon2
@kr.kpmg.com



DA2본부의 부동산팀 및 PF채권 토털케어 센터는 재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거, 상업, 오피스 등 각 섹터별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어 각 채권 특성별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고객사들에게 보다 심도 깊은 결과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PF채권 토털케어 센터 주요 서비스

1단계

- PF채권 토털케어 필요성 존재 회사 보유 사업장 재무관점 진단
- 재무관점 진단은 진단 시점 기준 사업성 검토 또는 가치평가를 통해 As-Is 사항 명확히 파악

2단계

- 사업장 재무관점 진단 후 후속절차 Action Plan 수행
-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 가능 사업장은 사업장별 Condition을 파악하여 투자 성격에 맞는 자기자본/타인자본 투자자 유치
- 매각 Exit 필요 사업장은 PF 채권자 관점 최적매각가격 설정 및 사업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매수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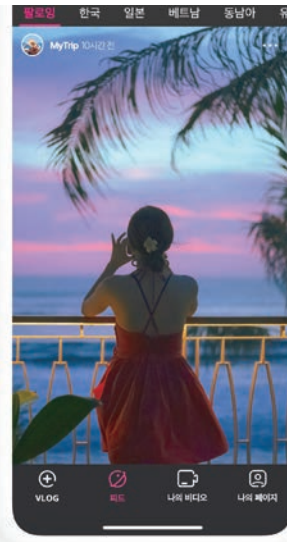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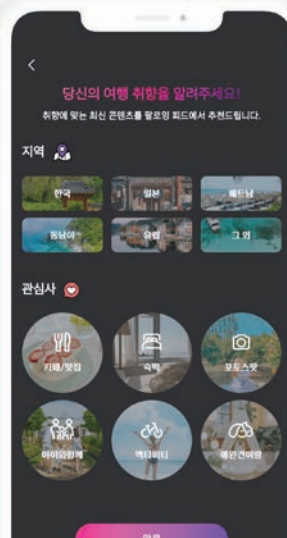
여행VLOG로 연결하는 세상의 모든 여행, 비브

영상 후기부터 예약까지



나만의 취향저격 여행

나의 여행 취향에 맞춰
선택 꾸욱!



여행VLOG를 통한 진짜 여행

지역/관심사별 인기 여행 Vlog를
추천받으세요!



영상 제작 혁신 테크 스타트업, 비디오몬스터

비디오몬스터는 고품질 영상 콘텐츠 서비스의 특화된 대중화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의 광고·마케팅 제작 서비스 기업이다. 독자적인 원천기술의 숏폼 영상 자동 제작 앱인 '비디오몬스터'와 여행 숏츠 플랫폼 '비브(ViiV)'를 양대 핵심 비즈 엔진으로 삼아 모바일 영상 콘텐츠 시장의 마켓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비디오몬스터
전동혁 대표

광고·마케팅 숏폼 영상 제작 플랫폼, 비디오몬스터

...100만 이상 앱 다운로드

비디오몬스터는 지난 2015년 9월, 영상 전문 제작사로 설립됐다. 이후 2018년 8월, IT 기반의 자동 영상 편집 솔루션 기업으로 사명과 업종을 전환한 후 2019년 6월 광고 및 마케팅용 숏폼 영상 자동 제작 서비스인 '비디오몬스터'를 론칭했다. 이어 이듬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해 동남아 5개국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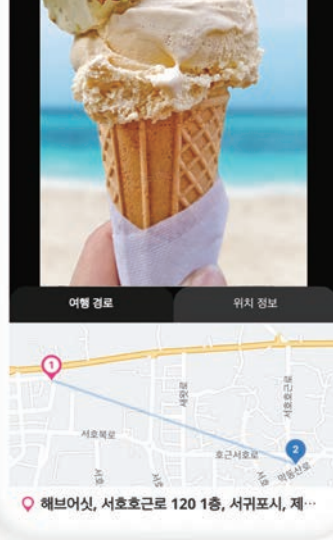
광고용 콘텐츠에 특화된 비디오몬스터 서비스는 높은 주목도가 필요한 광고, 마케팅용 숏폼 영상에 특화된 서비스이다. 높은 시각적 주목도를 위해 컴퓨터그래픽(CG) 모션그래픽을 지원하는 영상 템플릿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6,000여 개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템플릿 수량이다.

이후 안팎에 걸쳐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결과 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특허등록 6건 및 출원 4건, 100만 이상의 앱 다운로드, 65만 명의 가입 회원, 35만 개 이상의 영상의 자동화로 완성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여행 숏츠 플랫폼, 비브(ViiV)
… 다수 수상으로도 인정받아

개인들의 일상 목적에 활용할 3~10분 길이의 숏츠 영상 편집 도구(Tool)의 수요에 맞춰, 2022년 10월에는 자동 편집 및 영상 공유, 추천 및 예약 연계 기능의 올인원 여행 숏츠 플랫폼 ‘ViiV(비브)’ 앱을 베타 론칭했다.

비디오몬스터가 짧은 30초 내외의 영상 제작에 특화된 서비스라면, 여행 숏츠 플랫폼 비브(ViiV)는 길이 제한 없는 개인들의 여행과 일상 영상의 편집 및 공유, 그리고 커머스 연계까지 특화된 서비스이다. 자동 편집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Object Detection) 분석과 위치 정보를 동시에 영상에 자동 라벨링(Labeling)하여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편집, 자동 디자인 추천, 자동 영상 카테고리 분류에 활용한다.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편집된 영상은 재생할 때 단순히 영상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동 경로(여행)와 영상 내 장소의 위치(주소)정보까지 제공한다. 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에 나오는 다양한 장소, 즉 호텔, 식당, 관광지를 바로 예



한 눈에 확인하는 여행정보

장소, 후기, 꿀팁 정보 확인!
실시간 지도정보 연동

약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여행 숏츠 플랫폼 비브(ViiV)의 특징이다.

한편, 비브(ViiV)는 모바일기술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2020)을 비롯해 창업도약패키지 구글 창구프로그램 Top 10 선정(2021), 콘텐츠 스타트업 피칭플랫폼 K-Nock 대상(2021), 서울 투자청 CORE 100 선정(2022), 디지털 미디어 어노베이션데이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2022)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다.

아시아 No.1 비디오 테크 기업으로!

비디오몬스터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No.1 비디오 테크 기업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나아가고 있다. 비디오몬스터는 2020년부터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5개국에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싱가포르에 첫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광고용 숏폼 영상 제작 플랫폼인 비디오몬스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콘텐츠 스타트업으로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선 콘텐츠의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비디오몬스터의 영상 템플릿은 광고 카피가 있어, 전문화된 현지 언어화 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내 번역 플랫폼 사업에서 1차로 번역하고, 현지어를 모국

어로 하는 MZ 세대의 외국인들이 직접 카피를 워싱하는 작업을 한 후 현지어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별도의 광고 없이도 30만 명 이상의 가입 회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아울러 새롭게 론칭한 여행 숏츠 플랫폼 비브(ViiV)의 경우 1차 타겟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교차 여행 수요가 제일 많고, 양국의 유저가 만든 여행 영상 리뷰가 서로 교환 시침이 유효하게 일어날 국가이기 때문이다. 비브는 최종적으로 여행 및 호텔 예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동남아 국각보다는 ‘일본’에 최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향후에는 유럽 권역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비디오몬스터는 ‘Video For All(모두를 위한 영상)’의 사업 기조를 바탕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상을 만들고 싶은, 또 누구라도 영상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함으로써 진보된 영상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개인 및 사회적 소통, 세상과 공유하는 데도 적극적인 활동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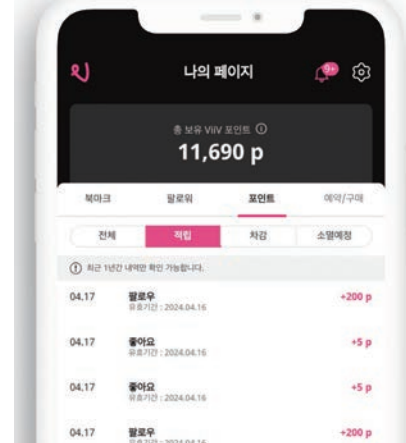
초간편 자동 편집

15가 2분만에 완성해주는 여행 Vlog에 커스터마이징까지!



돈 버는 여행

쌓이는 캐시받고 다음 여행까지 GO!





내년 초부터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 그 대응책은?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37개국 이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먼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상 기업들은 2023년 말까지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영향 분석을 완료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삼성KPMG 전문가를 통해 그 대응책 들어보려 한다.

Q 내년부터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는 무엇인가요?

G20, OECD 및 약 145개국은 지난 2021년 10월에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차단하고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제60조~제86조)을 신설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Tax3 민우기 상무

Tel. 02-2112-6886
E-mail. wmin@kr.kpmg.com

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다국적 기업 그룹은 국가별로 구성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조정대상 조세를 산정하여 실효세율¹⁾을 구하고, 해당 실효세율이 15%를 하회하면 초과 이익²⁾에 15% 미만 비율만큼을 곱한 추가 세액을 최종 모기업이 그 소재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³⁾, 소수지분구성기업⁴⁾, 공동기업⁵⁾에 대해 각각 추가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전환기 세이프 하버로서 (1)매출액 1,000만 유로 미만인면서, 세전이익 100만 유로 미만이 경우, (2)간이실효세율⁶⁾이 일정률⁷⁾ 이상인 경우 및 (3)세전이익이 실질 기반 제외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조정대상 조세/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 2)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 실질 기반 제외 소득, 여기서 실질 기반 제외 소득이란 인건비와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 3) 제3자 투자자가 20% 초과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기업
- 4) 최종 모기업이 같은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 기업
- 5)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지분법을 사용하는 기업
- 6) 조정 후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CbCR세전 이익
- 7) '23-'24는 15%, '25는 16%, '26은 17%



Q 글로벌 최저한세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면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경우 그 혜택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 국가의 과세 문제가 아닌 최종 모기업,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 등의 납세지 국가와 구성기업이 속한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 문제로 실무적으로 여러 과세당국과의 이견 내지 문제 제기에 따른 분쟁 가능성과 이중과세가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과 고려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신고관리 인력 보강, 협업체계 수립, 관련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외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과 내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대응 절차 절차를 검토하고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정KPMG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을 위하여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국제조세(Tax3) 및 이전가격(Tax6) 본부 내에 전담 인력을 구성해 연구했고, 그동안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영향분석을 위한 툴을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KPMG 글로벌을 통해 개발 중인 Automation 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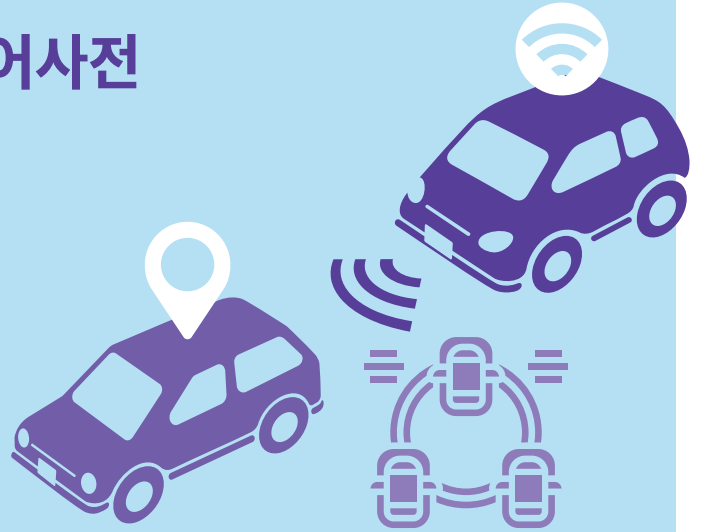
최근의 경제 및 경영, 트렌드 등을 반영한 신조어를 소개하는 '알쓸사전'. 이번 호에서는 중국 외의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을 일컫는 '알타시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기회!

알타시아 (Altasia·Alternative+Asia)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의 매력에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14개국을 알타시아로 주목받고 있어요. 알타시아는 최근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한 신조어인데요, 기술력이나 물류, 자원, 투자 정책 등 부문별로 나뉘볼 때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가 모인다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 ▲인구가 많은 인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아세안(ASEAN) 국가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 등 14개국을 알타시아 국가로 꼽았어요. 14개의 알타시아 전체 노동 인구는 14억 명으로 중국의 9억 5,000만 명을 추월하고, 고등 교육을 받은 인구 역시 중국보다 많아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해요.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은 알타시아 국가로 공급망을 펼치고 있어요. 애플은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인텔은 베트남 호찌민시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랍니다. 알타시아의 비중과 역할이 점차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스마트폰보다 더 똑똑한 자동차가 온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최근 모빌리티 산업의 새 화두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는 미래 자동차 모습을 바꿀 달린 대형 첨단 스마트폰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보여요. SDV는 소프트웨어(SW)로 하드웨어(HW)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를 의미해요.

자동차 업계에서 SDV 바람을 몰고 온 것은 테슬라인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테슬라는 그에 앞서 SDV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어요. 또한,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등 기존 완성차 업체도 SDV 전환을 가속화했죠. 특히 현대차는 2025년까지 SDV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완전히 전환하기로 했어요. 현대차·기아는 SDV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연구개발(R&D) 조직을 스타트업과 같은 연합체방식(ATO)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SW는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SDV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는 2027년 출시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무궁무진한 성장 기회가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Happy workplace



인재관리센터

채용 특집 I - New People

6월 입사자를 만나다!
“우리는 신입 삼정인입니다!”

18

채용 특집 II - Recruiter

Recruiter를 만나다!
“함께 성장! 지속 성장!
성장으로 이끄는 법인”

20

삼정동호회자랑

슬램덩크의 열기를 이어갈
농구 동호회, 삼정 Blues!

22

인재양성소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6기 수료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어땠나요?”

24

KPMG Story

FY2023 신입 파트너들의
다짐은?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실패학 개론

28

心 Care

진정한 긍정:
무조건 ‘좋게 좋게’가 아닌 태도이자 선택

30

Samjong News

‘2023 삼정KPMG 프로페서’에
백태영·이호영·이유진·정선문 교수 위촉 外

32

6월 입사자를 만나다! “우리는 신입 삼정인입니다!”

‘New People’에서는 새로운 삼정KPMG 가족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6월에 조기 입사한 신입 회계사들을 만나려 하는데, 이들은 삼정KPMG에서 지난해 겨울 파트타임을 경험했다고 한다. 파트타임을 경험하고 난 후, 삼정KPMG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 입사 지원동기부터 앞으로의 각오까지 들어보자.



Why 삼정KPMG?

파트타임 경험하면 꼭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

김찬아: 삼정KPMG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꼭 다시 돌아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조직 자체가 끈끈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구성원분들이 많을뿐더러, 첫 팀 배정에서 박태현 회계사님이 구성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감사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허정: 삼정KPMG를 한번 경험하면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파트타임을 하면서 삼정인으로 꼭 다시 입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삼정 특유의 뚝뚝 뭉치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요. 수평적인 분위기라 어렵지 않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상기: 저 역시도 수평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모르는 부분을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는 팀원들과 바르게 융화하게 해줬고, 업무적 역량도 더욱 발휘될 수 있었어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삼정인이 된다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조기 입사를 결심했어요.

양찬송: 모두 같은 생각이네요, 저는 파트타임 때 모든 것이 처음이라 헤매기도 하고, 헛갈리는 것도 많아서 선배 회계사님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쉽지 않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모습에서 이 곳이야말로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배운다면 저 역시도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입사 전후 느낀 삼정KPMG!

체계적인 교육과 자율 좌석,

소통으로 하나된 조직!

김찬아: 아무래도 입사 전에 선호하는 본부를 선정해서 지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본부도 산업별로 나눠져 있기에 본부 배정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이 반영될 수 있어 좋았고, 입사 후에는 본부 내 팀제로 운영되어 팀원들과 더 끈끈하게 소통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

양찬송: 저는 가장 먼저 느낀 점이 양질의 입사자 교육 과정이었어요. 신입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업무 과정이나 툴을 소개해주셨고, 동시에 필요한 내용이 교육 자료에 대부분 담겨 있어 근무 중간중간에 참고하기에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서상기: 맞아요! 저도 교육 시스템이 장점이라 생각해요! 온라인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이기에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고, 폭넓고 깊은 수준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 역량 개발에도 큰 도움이 돼요. 아울러, 스마트 오피스도 우리 법인만의 장점이예요. 자율적인 업무 분위기가 보장되고, 모니터석, 창가석, 모션 데스크 등 다양한 자리를 개인 선호와 업무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허정: 공과 사가 확실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다들 열정적

으로 일하시고 또 너무 잘하셔서 놀랐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거나, 회식할 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모습에 즐거웠습니다.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는 삼정KPMG 분들이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의 계획?

다양한 경험으로 역량 높이며,

성장하고파!

서상기: 저는 먼저 법인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를 통해 폭넓은 산업에 깊은 수준의 이해도를 갖고, 새롭게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싶어요.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경험으로 삼정KPMG와 함께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허정: 저 역시도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고객 사이트를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직접 부딪혀 보아야 저의 역치가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회계사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왔다면 어떤 회계사가 될 것인지 고민하며, 가야 할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찬아: 아직 시야가 좁아 커리어에 대해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정KPMG에서 상장사 인차지 역할을 해내고 싶어요. 민폐가 되지 않고, 1인분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양찬송: 삼정KPMG 안에서 성실히 배우고, 머지않은 날 팀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항에 대해 회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Recruiter를 만나다!

“함께 성장! 지속 성장! 성장으로 이끄는 법인”

리크루팅 최전선에 있는 리크루팅 TFT 총무를 만나봤다. 법인 홍보를 자처하며 리크루팅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들을 만나, 삼정KPMG에서 이뤄온 성장 스토리를 들어본다.

이나경 S.Analyst (Deal Advisory7)

업무와 리크루팅 활동을 병행하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활력을 얻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래의 후배분들을 만나 법인을 알릴 수 있다는 점도 큰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법인이 인재 채용과 육성에 가장 적극적이라 생각해요. 덕분에 법인 내 우수한 인력들과의 다양한 업무 경험이 제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어요. 되돌아보면 동료나 팀원들과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많았어요. 동료들의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나 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 배웠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전문가 집단에게는 능력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 자체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규모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많이 수임한 만큼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뤄왔다고 생각해요. 이에 많은 우수한 후배분들도 삼정KPMG에서 함께 근무하며 성장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동력이 되어줄 유망한 신입 회계사분들을 모셔오기 위해 리크루팅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들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

이나경 S. Analyst (Deal Advisory7)

GEP 해외연수로
동기부여 &
리프레시!

박진용 S. Senior (B&F2)



박진용 S.Senior (B&F2)

수험생 시절, 리크루팅 TF 선배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연습장, 필기구, 간식을 지원하며 조언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덕분에 법인 생활에 대한 꿈을 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좋은 기억 덕분에 저 역시도 수험생 후배들에게 좋은 기억과 인연을 남겨주고자, 2019년 입사 이후 지금까지 리크루팅 TF로 활동 중입니다! 우리 법인은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저 역시도 그 혜택을 최근에 받았습니니다. GEP (Global Elite Program) 13기 우수자로 선정되어, 지난 6월에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2주간 다녀왔어요. 이번 연수를 통해 리프레시할 수 있었고, 새롭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법인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소통 문화를 통해 업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커리어 성장을 이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쪼록 우리 법인의 입사를 희망하는 미래의 후배분들이 우리 법인에서 기쁨과 설렘으로 즐겁게 성장을 이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유건백 S. Analyst (Deal Advisory4)

유건백 S. Analyst (Deal Advisory4)

저는 수험생 시절 의지를 북돋워 준 좋은 선배님들이 큰 힘이 되었고, 그 고마움을 되돌려주고자 리크루팅 TF에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법인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멘토와 함께 고민하며,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저는 CM1 본부에서 소비자 기업 위주의 감사 업무를 통해 기본적인 매출·매입 프로세스 등 기본기를 익힐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어요. 이어 제게는 멘토님이신 본부장님과 상담을 통해 Deal 본부로 이동해 적성에 맞는 업무를 맡을 수 있었죠. 마침 우리 법인에는 NCP(New Challenge Program) 제도와 같이 다양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렇듯 개인의 커리어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법인 문화 덕분에 커리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아울러, 우리 법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최고의 동료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큰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법인으로 와서 함께 성장을 이뤄가면 좋겠어요. 저도 예비 삼정인분들을 모시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장가현 S. Senior (ICE2)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 발표를 기다리며, 삼정KPMG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프로페셔널한 회계사 선배들을 보고, 입사하면 꼭 저렇게 멋진 전문가가 되어서 법인 홍보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입사 후 그 꿈을 실현하게 됐어요. 하하.

제가 생각하는 우리 법인의 장점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제가 맡은 산업들은 요즘 핫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게임 산업, 미디어 광고 산업이 많은데요, 이런 산업들이 급변화되는 만큼 감사인들도 지속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처리 숙지가 필요하거든요. 이에 우리 법인은 매년 직급별로 필수교육, 분기별 IFRS 업데이트 교육 등에서 최근 회계 트렌드나 감사 업무에 용이하게 쓰이는 Smart Tool 교육 등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얻는 회계 및 배경 지식들은 회사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해당 업계의 클라이언트와 소통할 때도 용이한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앞둔 예비 후배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시작을 어디에서 하는지 중요해요! 우리 법인에서 다양한 Career Path를 개발해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장가현 S. Senior (ICE2)



농구 동호회, Blues의
능름한 모습

농구 동호회 문의

DA6 송유성 이사
yusungsong@kr.kpmg.com



슬램덩크의 열기를 이어갈 농구 동호회, 삼성 Blues!

올해 초,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다시금 농구붐이 일었다. 이러한 농구 열풍에 힘입어 삼성KPMG 농구 동호회는 더욱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열정적으로 농구를 즐기며 화합을 도모하는 농구 동호회를 소개한다.

10년이 넘는 역사, "친선 경기 제안도 많아"

최근 추억의 만화 영화가 극장판으로 돌아왔다. 바로 '더 퍼스트 슬램덩크'. 많은 이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농구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폈다. 많은 삼성인들의 가슴에도 농구에 대한 불꽃이 피어났는데, 코로나19의 기세가 잦아들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금 코트를 누비고 있다. 삼성KPMG 농구 동호회는 Blues라는 이름

으로 2013년 10월 개설되어, 지금까지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문구 전무(MC3)가 회장직을 맡고 있고, 송유성 이사가 (DA6) 총무를 맡아 동호회를 꾸려가고 있다. 농구 동호회, Blues는 한 달에 2번 실내 농구 코트에서 5:5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는 동호회에 속한 삼정인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타 농구 동호회를 초청해 시합하기도 한다. 송유성 이사는 “최근에는 한국은행에서 친선 경기를 제안해왔고, 하반기에는 삼성SDS팀과의 친선 경기를 조울 중”이라며, “사내 구성원들은 물론, 다양한 기업의 구성원들과 함께 농구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즐거워요!”라고 말했다.

팀플레이 짜릿해! 땀 흘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확 풀려!

농구 동호회에는 농구 러버들로 가득하다. 송유성 이사는 대학생 시절부터 대학 리그 경기에도 참여할 만큼 땀속까지 농구인이며, 이진영 S.Consultant(RC) 역시 대학교 때부터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무조건 농구를 즐기러 체육관으로 향했다.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던 취미를 잊고 살아오다 좋은 사람들과 농구를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마음에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진영 S.Consultant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적, 환경적 여건 때문에 농구를 즐길 수 없었는데, 우연히 TV 속 농구 경기를 시청하며 과거 숨차게 코트를 누비며 농구를 즐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련히 잊힌 농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Blues에 가입했어요”라고 말했다.

농구의 매력이 팀플레이라고 말하는 신준혁 S.Analyst(DA6)는 워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좋아하는 농구를 동호회 참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준혁



1. 속공이다! 골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Blues 2. 슛을 던진 후 공이 들어가려는 순간!

S.Analyst는 “농구가 주는 매력은 많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팀플레이라 생각해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선수 교체가 많이 이뤄지는데, 그만큼 많은 공격과 수비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팀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스포츠”라며, “그 전환과 호흡 속에서 서로의 힘이 맞춰질 때 짜릿함을 느껴요. 하하”라고 웃음 지었다. 또한, 이진영 S.Consultant는 “포지션별로 역할은 있지만, 팀 구성원 모두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스포츠”라며 농구의 매력을 덧붙였다. 아울러, 송유성 이사는 “공격과 수비 전환으로 코트를 쉴 새 없이 뛰어 다녀서인지, 자연스럽게 체력도 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예요. 무엇보다 땀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라고 말했다.

실력보다 즐거움이 우선! “즐겁게 플레이해요”

농구 동호회는 실력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동호회일까? 농구 동호회에는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다양한 삼정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농구를 접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신준혁 S.Analyst는 동호회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뛰었던 경기를 떠올리며, 긴장감이 최고였다고 다리에 쥐가 났단다. “제가 첫 경기 참여로 승부욕이 크게 불타던 지라,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뛰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친절히 팀플

레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동호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이진영 S.Consultant 역시 팀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동호회 활동 초반에 체력적 한계에 부딪혀 잘 들어갔던 슛은 빗나가고, 부담감에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호회원들의 관찮다는 격려와 응원 덕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더욱 삼정인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총무인 송유성 이사 역시 실력보다는 즐거움이 우선시되는 동호회라고 강조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취미 활동하며 소통하기 위해 운영되는 동호회이기에 많은 부담은 내려놓고 언제든지 참여해주셔도 좋아요.” 이어 송 이사는 총무로서의 앞으로의 포부도 전했다.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삼정인들이 농구를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고 싶어요! 아울러 외부 기업들과의 다양한 친선 경기로 우리 법인의 네트워킹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삼정 KPMG 농구 동호회, Blues! 삼정KPMG의 컬러를 담아 지은 동호회 이름에서 법인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 다시금 붐업이 된 농구의 인기만큼이나, Blues 역시 그 인기를 이어 다양한 삼정인들이 코트 위를 누비기를 응원해본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6기 수료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어땠나요?”

삼정KPMG는 해마다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14일, 21일, 28일, 총 3회에 걸쳐 ▲Leading Self, ▲Leading People, ▲Leading Change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본인만의 강점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리더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그간 지닌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럼 이번 호에서는 참가자들을 만나 프로그램에 관한 후기를 들어본다.



천천히 가도 되지만 포기는 말자!

이정민 Manager (Deal Advisory6)

저는 '팀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전략기반 상황대응 리더십'과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해' 세션을 통해 다른 리더들은 어떻게 팀원을 대하는지 솔직하게 들어볼 수 있었고, 팀원들의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 노하우도 익힐 수 있었어요. 아울러, 마지막 날 서지희 회장님(WIN, Women in INnovation)의 '여성 리더와의 만남' 세션에서 회계법인 입사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들려주셔서 행복해하시는 모습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Never ever give up" 슬로건을 보여주셔서 힘들 수도 있지만 목표가 중요하고 천천히 가는 건 괜찮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 저는 리더로서 팀원들의 고민과 힘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팀원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Deal 본부는 여성 파트너가 많지 않은데 앞서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여자 Deal 파트너는 멋지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답을 얻을 수 있었던!

이민선 Manager (Tax6)

좋은 기회로 여성 리더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타 본부의 동료, 선배님들과 대화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직급에서 하는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니 용기도 생기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세션인 ‘Leading Change’ 시간이 유독 기억에 남는데, 현재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리더분들께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울러, 다양한 답변을 통해 제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 세션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자신만의 스타일 만들기’라는 문구가 기억에 남는데, 그동안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성향의 차이를 인지하고 제 성향에 맞는 스타일을 구축해 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전문성을 쌓는 것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됨을 잊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데 집중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성장을 이뤄 가려 합니다!



법인내 여성 리더들과의 네트워킹!

신준희 S.Manager (IM3)

이번 프로그램 일정 내 모든 세션이 다 좋았지만, 그중 가장 바로 적응이 가능할 정도로 도움이 된 항목은 ‘마음챙김-명상’ 세션이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반응을 ‘내’가 주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저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법인 생활을 하면서 타 본부와 교류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번 기회로 타 본부의 여성 리더분들과의 네트워킹을 맺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회계법인은 ‘사람’이 전부인 조직이지만, 저는 그동안 ‘사람’에 Focus 하기보다, ‘업무’에 집중해 왔던 것 같아요. 올해 법인에서 ‘People First’를 강조하는 만큼, 저 역시도 이번 리더십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팀원 개개인별의 업무 능력 및 성향 등을 이해하고 각 팀원에게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소통하는 리더로 거듭나고 싶네요.

나를 돌아보고 좋은 리더에 대해 고민한 시간

오은영 S.Manager (RC)

이번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부장이라는 직급으로, 프로젝트 내에서는 PM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 어느새 저 자신보다 프로젝트, 팀원, 고객사 등 외부적인 요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데, 이번 프로그램의 공통적 메시지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 집중해서 오롯이 나를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좋은 기회였어요. 아울러, 두 번째 세션 ‘Team Maker(상황대응 리더십)’는 올바른 팀 리더의 역할에 대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동안은 일관된 성향과 일하는 방식을 가진 팀 리더였다면, 좋은 리더의 모습은 팀원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번에 배운 점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가고 싶어요! 이를 통해 팀원들이 저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리더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FY2023 신입 파트너들의 다짐은?

삼정KPMG는 지난 7월 1일자로 33명을 신입 파트너로 선임했다. 지난해 감사·세무자문·재무자문·컨설팅 모든 부문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오며 따라, 이번 승진 인사도 전 서비스 영역에서 고루 이뤄졌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 신입 파트너들을 만나, 앞으로의 힘찬 포부와 다짐을 들어봤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민혜영 상무 (CM2)

저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오감을 가지고 경청하고, 각자만이 지닌 개성과 특별한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업무와 목적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폭넓게 사고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춰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함께 극복할 수 있음에 대한 신뢰를 조직 안에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면서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단계 단계마다 구성원들이 겪어야 하는 성장통에 대해 구성원의 입장에서 상처와 고통을 공감하며 치유를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나아가는 리더

한대근 상무 (IM4)

저는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혼자 가면 빠른 길로 먼저 갈 수는 있겠지만, 함께 하면 어떠한 역경일지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머나먼 여정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기뻐하기보다는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정말 기쁘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자 빨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혼자 기뻐하기보다 함께 기뻐하는 리더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의 끝은 없지만, 항상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오종현 상무 (Tax2)

흔히 리더십은 열정, 소통, 동기부여, 위임 등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되나, 제가 꿈꾸는 리더십을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저에게 '자연의 섭리'는 너무나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음 아닌 최대 4만km의 먼 거리를 무리 지어 이동하는 '기러기'인데요, 선두 기러기의 날갯짓으로 만들어진 상승기류는 뒤따르는 새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리더가 지치면 다른 새가 선두로 나서는가 하면, 서로 격려하고 낙오자를 지켜줘 날갯짓으로만 대장정을 완성하는 모습! 굳이 몇 단어로 형용하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균림하지 않으며 비전과 동기부여를 통해 모두의 발전을 꿈꾸는 리더십'입니다. 뻘한 단어들을 나열하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따뜻한 리더십'을 보았고 이를 꿈꿉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유진우 상무 (Deal Advisory7)

먼저 저는 리더로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팀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설정하고, 팀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가이드하고 싶어요. 또한 저는 리더로서 넓게 보고 예상되는 난관을 미리 파악해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설사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선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헤쳐 나가고 싶어요. 아울러 리더로서 팀원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능력을 뽐낼 수 있도록 돕고 싶고,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협업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팀과 조직의 역량을 견인하는 리더

서상현 상무 (MC2)

"Don't coach the player, Coach the team." 저는 축구 명장 모리뉴 감독처럼 팀과 조직의 역량을 견인하는 리더가 되려 합니다. 구성원들이 One team이라는 소속감과 확고한 신뢰 관계 속에 팀의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소통해 가려 합니다. 또한 팀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팀원들 각각의 역할과 동기부여를 명확히 하고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코칭하고 싶어요.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된다." 아일랜드 정치가 K.오브라이언의 명언처럼 개인과 조직이 동반 성장하는 People First 조직문화를 실현하여 Vision 2025 달성에 기여해 나가려 합니다.





“실패와 혁신은 일란성 쌍둥이다 실패는 자산이다”

실패학 개론

미국 실리콘밸리는 성공이 아닌 실패의 요람이다. 그러나 실패를 비용으로만 간주하거나 낙오자로 취급하는 각박한 사회적 분위기에선 위대한 도전과 창의는 싹틀 수 없다. 특히 100개 중에 한 개가 살아남는다는 벤처 생태계에선 말할 것도 없다. 도덕적 문제만 없다면 계속 기회를 주는 게 그들의 도전정신을 잉태시키는 혁신의 자궁이 된다.

실패는 디딤돌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실패는 소중한 자산이다. 심지어 면접 때 실패한 사람을 우대하는 회사도 있다. 알고 보면 실패에 대한 우대는 우량기업의 경영자들이라면 빼놓지 않고 챙기는 성공 비결이다. 반대로 큰 성공은 실패의 잠재적 경고 신호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아마존이 진입하면 기존 사업체들은 초토화된다는 뜻의 ‘amazoned’란 신조어를 탄생시킨 세계 최강의 아마존을 보자. 1964년생 창업주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특히 실패의 경험을 유달리 강조해왔다. 그

는 초기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아마존을 가장 성공한 회사라기보다 가장 편하게 실패하는 회사로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적었다.

돌이켜보면 회심의 스마트폰 시장 진출에서 처참한 실패를 맞본 후 그는 “실패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직원들을 다독였다. 이후 개발팀은 이러한 리더의 철학을 디딤돌 삼아 결국 아마존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에코’를 탄생시켰다. 이어서 현재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비서 ‘알렉사’를 출시해 대박을 터뜨렸다. 따지고 보면

실패 수용을 넘어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이런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시행착오를 장려하라

서울공대 이정동 교수는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시행착오의 문화를 장려해야 하며 실패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Industry 5.0시대의 초융합기술경제에서 실패는 혁신이란 비밀의 문을 여는 키이다. 따라서 과도한 실패 징벌은 혁신의 종말을 초래한다.

특히 그려진 밑그림대로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실패가 두려운 일이지만,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회에서는 실패가 선생님이다. 특히 처음 부딪히는 도전적 과제일수록 빠른 시행착오는 독창적인 그림을 탄생시킬 확률이 높다. 한동안 “작게 빨리 실패하라”가 화두가 되었던 이유다.

실패가 주는 선물

무엇보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약점을 깨닫게 된다. 리더는 직원이 저지른 실패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때, 그들은 실패한 후의 태도가 그 다음을 결정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된다.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 또한 “직원이 별을 따려고 나갔다가 달만 슬쩍 건드리고 왔다 해도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했다.



유수의 대학 졸업자나 고급 스펙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무능한 경우가 많은 것은 그들이 가진 방어적 태도로 인해 실패에서 진짜를 배울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크리스 아지리스(Chris Argyris) 명예교수는 10년간 이 대학 졸업생의 성과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하버드라는 최고의 수재들이 생각만큼 많이 배우지 못했고, 의외로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들은 방어적이고 비판을 차단하며, 비난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라고 썼다.

하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No

play no error).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여기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실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때의 실패란 정제된 순금이 되기 위해 단련하는 과정이며,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지불하는 수업료일 뿐이다. 이런 원리가 마인드에 장착되면 실패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주로 간 한국의 ‘퍼스트 펄링’ 누리호의 도전을 보라.

“실패란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연예인 보정속옷으로 유명한 스팅스(Spanx) 설립자, 사라 블레이크리(Sara Blakely)의 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알아야 한다. 결국 성공은 실패의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진정한 긍정: 무조건 '좋게 좋게'가 아닌 태도이자 선택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조언을 들어본 적 있는가? 과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만병통치약일까? 이번 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좋고 밝은 생각만 하는 성향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긍정'에 대해서 다룬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해서가 아니라,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 칼 융 -



“우울하고 세상이 다 싫을 때는 감사 일기를 써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하루 겨우 써보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업무 처리도 못 하겠는데 감사 일기가 웬 말인가요?” 라고 상담을 받는 분이 말씀하셨다. 주어진 일 중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자는 취지가 있는 감사 일기의 상당한 치유적 효과는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로서 감사 일기 쓰기를 제안하면 들으시는 분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라는 제안만큼이나 감사 일기도 뻔한 대책이기 때문일까? 게다가 감사 일기를 써보자는 것은 ‘내키지 않아도 좋게 생각을 해보자’는 일종의 강요 아닌 강요가 있기도 하다. 긍정적인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일 정도로 긍정적인 태도는 심리적 맥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좋은 생각만 해야 하는 긍정 과잉인 사람들이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피부으며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만큼이나 긍정 과잉 또한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다.

긍정 과잉 태도에는 ‘내가 힘들고 속상하던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다.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보다 밝고 즐거운 이야기나 자랑거리를 드러낼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을 받은 경험이 압도적이었을 경우에 긍정 과잉 태도가 강화된다. 편한 관계 내에서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흠이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을 ‘내 얼굴에 침 뱉기’라고 여기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긍정 과잉 태도를 장착하게 된다.

긍정 과잉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고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로 나뉜다. 상대방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고 진지한 상황에서도 ‘별거 아냐, 좋은 생각만 해,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 잘 지내야지, 이 정도면 운이 좋은 거야!’의 맥락에 맞지 않는 밝은 생각만을 내세운다. 대체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무마하고 싶은 조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긍정 과잉 태도가 주는 위안감은 잠시간의 감정일 뿐

긍정 과잉 태도를 지나치게 의식화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점들을 보며 ‘나는 저런 약한 모습이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을 하는 것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수용을 받을 수 없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 두려움은 논리적으로 왜곡된 인식에 근거한 비합리적인 감정이다. 그렇기에 긍정 과잉 태도가 상대방에게 주는 어색함과 거리감이 대인관계에서 성격적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약한 모습과 불안한 감정들을 적당히 드러내었을 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밝은 생각만 하는 것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르다. 무조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 쪽에 치우친 생각이듯 두루뭉술한 낙관적인 생각 또한 ‘대책 없음’

에 가깝기도 하다. 긍정이란, 낙관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을 모두 검토해 본 후 ‘그럼에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래’라는 태도이자 선택이다.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긍정이라는 갑옷을 꺼입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인정해보자. 그 때 찾아오는 긍정적 깨달음과 감사는 깊이 있는 선물일 것이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2023 삼정KPMG 프로페서’에 백태영·이호영·이유진·정선문 교수 위촉



삼정KPMG가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삼정KPMG가 후원하는 ‘2023 삼정KPMG 프로페서(Professor)’ 위촉식을 개최했다.

회계제도 및 회계투명성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및 활동으로 원칙중심 회계의 정착과 회계 위상 강화에 공헌한 교수에 수여하는 ‘디스틸귀시드 프로페서(Distinguished Professor)’에는 백태영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이호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22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ESG 경영,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ACI 프로페서(Audit Committee Institute Professor)’에 선정됐다. 회계학 관련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신진 학자에 주는 ‘스칼라십 프로페서(Scholarship Professor)’에는 이

유진 세종대 경영대학 조교수와 정선문 동국대 경영대학 조교수가 올랐다. 이 교수는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에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2022년 한국거래소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을 비롯해 한국회계기준원 ‘2022 IFRS 리서치 포럼(IFRS Research Forum)’ 연구과제 선정, 2023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정 교수는 경영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2022년 게재되며 탁월한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2023 삼정KPMG 프로페서(Professor)’는 한국회계학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삼정KPMG는 위촉된 교수들에게 향후 1년간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인재 존중을 위한 'People First 2023' 활동 전개



골프대회 우승팀과의 라운딩



우수인재 Recognition 축하 만찬

삼성KPMG가 인재 존중을 위한 'People First 2023'의 일환으로 '우수인재 Recognition' 및 '골프대회 우승팀과의 라운딩 및 만찬'을 진행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삼성KPMG 우수인재 Recognition' 축하 자리가 서울 롯데 시그니엘 클럽에서 마련됐다. '삼성KPMG 우수인재 Recognition'은 법인의 업무 성과평가 결과, 최상위 평가 등급을 직전 3개 연도 연속으로 받은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CEO, COO, PPC 위원장, People First Center 리더 등이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대상자들과 오찬을 하며 개인의 생각을 들었으며, 경력 개발과 성장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참가자는 "인재를 케어 하는 노력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법인은 임직원 성과에 대한 보상을 다각도로 제공하며 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월 5일에는 '제2회 삼성KPMG 챔피언십' 우승 기념 라운딩 행사가 진행됐다. 안양 CC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경기는 점심 식사 후 포볼 매치플레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저녁 만찬은 우승본부(DA4), 준우승본부(ICE3)의 선수들과 각 본부 파트너가 함께 참석해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삼성KPMG는 'People First 2023'을 통해 임직원들이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Consulting 조직 개편으로, 신상품 및 방법론 개발 선도

삼성KPMG가 지난 7월 19일 CS Function 본부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 6개 본부에서 SG, Digital, RC, MC1~4, 총 7개 본부로 변경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SG와 Digital은 전 산업에 걸쳐 교두보가 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새로운 상품 및 방법론 개발을 선도할 예정이다. RC와 각 MC본부들은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축인 Cyber Security팀은 Digital 본부에 통합해 디지털 역량을 결집하며, 그간 SCG에 소속된 국제 통상전략팀은 업무 연관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MC본부에 통합됐다.



삼성포럼

‘빅데이터로 바라본 MZ 세대 소통법’ 주제로 열려



지난 7월 18일 ‘삼성포럼 - 빅데이터로 바라본 MZ세대의 소통법’이 팀즈 라이브(Teams Live)와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본 포럼에서는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빅데이터로 살펴본 사회 변화 키워드 세 가지를 설명하고, MZ 세대와의 더 나은 소통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봤다. 송길영 부사장은 “리더는 구성원이 자신만의 아카이브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하며, 업무 중 불필요함을 빨리 제거하고 더 높은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산업 및 일상의 변화를 관찰하며 통찰력을 키워야 하며,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도록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신입 컨설턴트 입문 교육 진행, 법인 이해 및 비즈니스 소양 함양해



삼성KPMG가 지난 7월 20~21일 상반기 신입 컨설턴트 입사자를 대상으로 입문 교육을 진행했다. 삼성KPMG는 신입 컨설턴트들이 안정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On-Boarding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삼성 KPMG 인재상인 ‘Everyone a Leader’로 신뢰를 주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신입 컨설턴트는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수강했다. 이어 7월 20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린 합숙 입문 교육에 참가했다. 교육을 통해 신입 컨설턴트는 법인에 대한 이해 및 비즈니스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기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팀 빌딩 활동 및 본부장들과 함께 입사를 축하하는 환영 만찬이 진행됐다.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NK비즈포럼 8기 - KPMG Day' 행사 개최



지난 7월 20일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NK비즈포럼 8기 - KPMG Day' 행사를 개최했다. NK비즈포럼은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삼정KPMG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최고위 과정으로, 8기 과정에는 기업 CEO와 대기업 임원, 금융인 등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KPMG Day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삼정KPMG Digital 본부장인 조재박 부대표가 'ChatGPT가 촉발한 초거대 AI 비즈니스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 큰 호응을 얻었다.

[사랑나눔] 장난감 재탄생 봉사 & 학습취약아동 문해력 교육 후원금 지원



지난 7월 8일 삼정KPMG 임직원들이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장난감 재탄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37명의 임직원 및 가족들은 고장난 장난감을 분해하고 세척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봉사자들이 분해한 페플라ستيك들은 다시 잘게 조각되어 새로운 장난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봉사를 통해 페플라ستيك의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해보고 장난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삼정KPMG가 저소득 아동·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및 문해력 교육을 제공하고, 법인의 중고 노트북을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디지털 교육 및 기기지원 사업'은 7~8월 방학기간 동안 총 4주에 걸쳐 진행되며, MS Office, 한글 등 정품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해 취약아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INTRODUCE -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Tax3 강성원 상무 영입



삼정KPMG가 7월 3일자로 Tax3본부에 강성원 상무를 영입했다. 강성원 상무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세무자문, Cross-border M&A, 해외자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Outbound 세무자문을 수행해왔고,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자문 전문가로도 활동해왔다. 강성원 상무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삼정KPMG 글로벌 세무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성원 상무는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업무를 필두로 Outbound 세

무자문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삼정KPMG에 합류하여,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전사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People First를 기반으로 여러 동료,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춰 삼정KPMG Tax가 Market Leader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경력

- 삼일회계법인(2008년~2023년 6월)
- 독일PwC Frankfurt Office 파견
(Korea Business Desk, 2015년~2018년)

Find
Opportunity
Everywhere
with KPMG

전문가로의 성장

2023 신입회계사 공채

2023년 6월 26일 ~ 9월 3일



삼성KPMG YouTube 채널에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입사지원서 접수 2023년 6월 26일 ~ 9월 3일
- 면접 2023년 7월 10일 ~ 9월 5일 (예정)
- 예비소집 2023년 9월 8일
- 입사일 2023년 9월 18일 또는 2023년 12월 26일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